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이성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II 목 차 II

- I. 서언
- II. 齋에 대한 認識과 分類
- III. 수륙재 儀文의 형성
- IV. 한국수륙재의 構造와 次序
- V. 결어

❖ 국문 초록

수륙재는 4성과 6범을 초청해 음식을 공양하고 하위의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 들려주어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종합적인 불교의식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수륙재는, 발상지 중국의 그것이나 한국불교 이전의 의문(儀文)과 그것에 대한 인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수륙재에서 재(齋)는 음식을 굽으며 하는 수행인데,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공

* 이 논문은 2013년 8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공동 개최한 <수륙재의 향연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줄고,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정토학연구』제18집, 정토학회, 2012.12)의 연장선상에서 논술되었다.

양하는 의식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다시 제사(祭祀) 추천(追薦)의식 일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에 대한 근원적 의미와 인식과 이해의 변천을 살피고, 수록재의문의 형성과 성립을 살핀 후, 결수문(結手文, 撮要)을 한국의 정통성 있는 수록의문으로 이해하였다.

또 수록재의 구조, 차서(次序)의 차이(差異) 등을 규명하며, 대령과 시련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였고, 수록재의 일차를 확인하였으며, 대령을 다른 의식보다 먼저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련의 의미가 현재와 다르게 음식을 공양하는 재자를 모시는 의식이라고 밝혀냈다. 또 상중하위에 대한 음식 공양의 평등과 변공(變供)의 차이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한국의 수록재는 공양을 올리는 재자의 형편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지고, 또 의례 실행상황에 따라 광대로 행하거나 간략하게 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 모습이 적지 않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거나 오인(誤認)되기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록재에 대한 이해는 전문 의례 수용자들의 이해가 최우선의 전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지 못했다. 그러므로 수록재의 바른 이해와 실행을 위해서는, 수록재의 발생과 구조와 의미에 대한 경전적인 이해 위에 역사적인 전승과정의 변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수록재에 반영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핵심어

수록재, 재의(齋儀), 재식(齋食), 결수문(結手文), 촬요(撮要), 범음산보집, 추천(追薦), 대령(對靈), 시련(侍禱).

I. 서언

근래에 들어와 수륙재를 실행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다.¹⁾ 수륙재는 6세기 초 중국 양나라에서 무제의 의해 실행되었다는 시원이 언급되고 있고, 11세기 경 고려 때부터 실행되었다고 하지만, 여말 선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불교의 전통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륙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²⁾ 필자 또한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³⁾ 본 논문에서는 앞의 줄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수륙재의 인식과 분류, 주요 수륙재 의문의 정통성, 그 구조와 특성, 차서와 차이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보려고 한다.

이 고찰을 통하여 현행 수륙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검토들이 수용된 바탕에서 수륙재가 원 의미대로 실행되면, 수륙재는 법계의 성범에게 차별 없이 공양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범부들을 구원하는, 최상의 불교 수행의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발표돼온 연구나 자료에 나타나는 수륙재의 실행목적은, 특정 망자를

1) 2013.11.13.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삼화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넛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여타의 사찰에서도 방생수륙재 등 다양한 수륙재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륙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尹武炳의 「국행수륙재에 대하여」(『백성옥박사 송수기념논총』, 1959)를 위시하여 金熙俊의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湖西史學』30집, 2001)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다뤄졌으며, 논자 또한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淨土學研究』제18집, 2012)에서 이후의 연구 성과와 문제 등에 살펴봤으며, 「한국의 수륙재」(대한불교조계종, 2010)에는 현행 한국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수륙재가 조사 보고되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대해서는 「영산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03)를 위시하여 沈曉變의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와 沈祥鉉의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관한 研究」(위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에서 영산재의 성립과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줄고, 「현행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12).

제사하는 제례, 또는 무주고혼(無主孤魂)에 제사하고, 무주고혼(無住孤魂)을 추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륙재의 역할은 망자의 제례와 추천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공덕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고, 육도 사생으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⁴⁾ 물론 현행 한국의 수륙재도 원래의 목적 아래 봉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제례(祭禮)와 추천(追薦)이 주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수륙재는 4성(佛·菩薩·緣覺·聲聞)과 6범(天神·人間·修羅·畜生·餓鬼·地獄)을 같이 청해, 상위의 4성에게 공양을 올리고, 하위의 6도중생에게는 무의시·재시·법시를 베풀어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무차법회지만, 현행 수륙재는 제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륙재의 의미와 구조를 바로 확립하여 여법한 무주유주 망자의 추천과 동참재자의 수복과 일체 중생의 성불을 이루는 수륙법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수륙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불교의 남 수륙계통인 송 지반(志磐, 13세기 중엽 활동)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6권)이나 북 수륙계통인 양악(楊諤, 11세기 중엽 활동)의 <천지명양수륙의문>(3권)⁵⁾대로 실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불교 수행문화로서 전통수륙재라야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논의 내내 한국불교의 수륙재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한 나라와 지역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이것이 전통문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수의 대중이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글 II장에서는 재의 인식과 분류의 문제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수륙재의문의 형성을 개괄한 후 한국불교 수륙재의 정통성을 가진 의문에 대해 논의하며, IV장에서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수륙재의 구조와 한국수륙재의 특성, 한

4) 윤소희, 「수륙재의 원형에 대한 고찰-대만 포광산 수륙법회를 통하여-」,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서울: 영산재보존회, 2008), pp.38~49.

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재』(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0), p.14.

국불교 수륙재의 차서와 차이 등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한국불교 수륙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Ⅱ. 齋에 대한 認識과 分類

1. 齋의 意味와 그 認識

현재 한국불교의 수용자들은 대개 ‘재’(齋)라고 하면 49재, 수륙재, 영산재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또 ‘승려들은 재를 먹고 산다’는 속언처럼 ‘재’는 승단유지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재에 대해 심효섭은 “재의 본뜻은 身·口·意 3업을 정제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변화하여 식사를 정제함에 쓰이며, 정오를 지나지 아니한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이는 의식과 관련하여 승려들과 속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함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齋)라 하고 후대에 이르러 죽은 이를 위하여 성대하게 불공(佛供)을 올리며 천도하는 것을 재라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齋)라 함은 곧 천도재라고 인식하게 되어졌다.”⁶⁾고 비교적 소상하고 정확하게 재 개념의 변천을 정리하고 있다.

재의 근원적 의미를 보면 현재적 의미의 재의 깊은 상관성과 재의 종교적 가치와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교의 재계(齋戒)는 범어 ‘uposadha’의 번

6) 沈曉燮,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p.8.

역어이다. 또 재계는 수정행(修淨行) 수기행(守飢行)이라고도 번역한다. 정행을 닦는 수행이며, 굶으며 하는 수행이다. 여기서 정행은 남녀관계를 갖지 않는 범행(梵行)을 의미하고, 기행은 오후불식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 재가신도의 대표적인 신앙활동의 하나로서 육재일과 같은 날에는 절에 가서 승려들처럼 오후불식과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이 날을 재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재일에 승려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의미를 안게 되었는가. 삼보에게 재[공양]를 올려 보시를 하는 것은 신도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승려들께 올리는 첫째 보시물이 음식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일체 중생은 음식에 의지하여 몸과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이다. 밥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7일이 지나지 않아 문득 수명이 다한다. 그런 까닭에 음식을 베푸는 것은 곧 목숨을 베푸는 것이다. 그 목숨을 베푸는 자는 오는 세상마다 장수하고 하늘세간에 태어나 요절하지 않으며, 의복과 음식이 저절로 갖춰지며, 재물과 부귀가 한량이 없기 때문이다.⁷⁾ 그러므로 재일에 재가 신자들이 승려들께 음식을 올리고 팔관재계를 받고 정행을 실천하는 재계(齋戒) 신앙에는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午後不食)이라는 재의 본래적 의미와 승려들께 공양을 올리는 반승(飯僧)의 현재적 재의 의미를 모두 안고 있다.

재(齋)는 재계나 재식(齋食)이라는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과 ‘점심식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재계는 잘 알려져 있으니 논외로 하고 재식 또는 재에 대해 ‘점심을 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 심효섭의 지적처럼 승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뜻에서 불공(佛供), 천도재로 의미가 전성(轉成)되었다고 본다면 언제 어느 시기부터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해명할 수 있다면 수록재 의문(儀文)을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재(齋)를 ‘점심 먹다’와 같은 공양 받는 행위로

7) 失譯人名, 今附東晉錄, 『佛說食施獲五福報經』(『大正藏』2), p. 855, “一切衆生依食而立身命, 不得飯食不過七日奄忽壽終, 是故施食者則施命也, 其施命者, 世世長壽生天世間, 命不中天, 衣食自然財富無量.”

이해하면, 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齋前’을 ‘점심 전에’ ‘喫齋’를 재를 들었다고 번역하면서 ‘齋後’를 ‘재를 마친 뒤’라고 번역해 놓으면⁸⁾ 현대 대부분의 한국 불교인들은 ‘재’에 대해 ‘49재’ ‘영산재’ ‘추천재’라고 하는 그런 ‘재’라고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재에 대한 의미를 현재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 하나를 보자.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에 대해 ‘영산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안진호 편 『석문의범』이라는 주장⁹⁾을 반박하기 위해 “齋前如上靈山齋後鳴鉞喝香”이라는 구절에 ‘영산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¹⁰⁾ 하지만 위 구절은 “齋前如上靈山; 齋後鳴鉞喝香”¹¹⁾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본다. ‘점심 공양 전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영산작법과 같이 하고, ‘점심 공양 뒤라면’ 오후가 되므로 바라를 올리고 (할향 연향 할등 연등 할화 서찬게송 등을 다하지 말고) 할향 연향계 삼귀의지심을 하라고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간략한 의식으로 봉행하라는 지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에 관한 이해를 보여주는 용어로는 양촌집의 ‘事佛飯僧’¹²⁾이나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事佛事神’(1392), ‘供佛齋僧’(1401), ‘齋佛飯僧’(1477)이 있으며, 공양·재식·반승의 의미가 혼용돼 있다. 적어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재’라는 말은 ‘반승’ 또는 ‘반승속(飯僧俗)’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를 어느 시기부터 현재와 같이 칠칠재 수륙재 영산재와 같은, 재에 관한 온전한 의식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위 인용 구절이 등장하는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이하 『범음산보집』이라 약칭함)의 찬집시기까지는 ‘점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음산보집』은 서문의 간기로 볼 때 18세

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서울: 중심, 2001), p.181.

9) 李英淑,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77.

10) 沈曉燮, 앞의 논문, pp.12~13.

11) 智還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韓國佛教全書』 11(이하 『한불전』으로 약칭함), p. 478중.

12) 『양촌집』권12, 진관사수륙사조성기, 1397년 9월.

기 초라고 할 수 있지만¹³⁾ 1661년 지선이 간행한 『五種梵音集』에 ‘按還師集’¹⁴⁾이라는 협주로 볼 때 17세기에도 유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범음산보집』 이후 종합 불교의례를 담고 있는 『작법귀감』(1826)의 목차 어디에도 ‘모모재’라고 하는 의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 시기까지의 ‘재’에 대한 이해로 볼 때, 점심공양의 ‘재’와 ‘전체 재의식’이 통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보면 ‘영산재’라고 하는 의식이 조선 초기부터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영산재’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린 시기는 적어도 19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정해진 재일에 절에 가서 승려들께 공양을 올리는 재의 근원적인 의미처럼 한국불교에서도 절에 재를 올리기 위해, 십일조처럼 재미(齋米)를 재독(齋桶)에 담았다가 불전에 올렸다. 이를 ‘불공’이라고 하고 제천에 공양하면 ‘제천공양’이라고 하였다.¹⁵⁾ 이렇게 불과 신중에게 공양을 올렸던 것을 다시 내려 승려들이 공양하므로 승려들은 ‘탁자 밥 내려 먹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19세기를 지나면서 ‘재’는 ‘공양’의 의미보다 ‘재의식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며, 공양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 의미와 그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재 의문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재 실행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13) 전라도 곡성 도림사 중간 목판본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3, 이하 『한불의총』으로 약칭함)은 1739년 간기가 보이지만 당시 101쪽에는 無用秀演(1651~1719)의 丁亥仲夏라는 서기로 볼 때 1707년에 중간 서문을 적었다고 볼 수 있다.

14) 智禪 撰, 『五種梵音集』, 『한불전』 12, p.159중.

15) 學祖 譯, 『삼단시식문』(진언권공 합편, 1496), 『한불의총』 1, pp.540~541.

2. 齋의 分類

수륙재 상주권공 등의 재를 권공(勸供)이라고 하며 삼보통청 등을 각청이라고 하여 달리 분류하지만,¹⁶⁾ 각청은 권공을 위한 청이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석문의범』 이후 재공과 각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하는 분류는 재고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길상(吉祥)을 바라거나 재앙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재는 재 공양을 올리는 목적이나 형식,¹⁷⁾ 설행 시기나 재를 받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의 설행 목적에 따라 돌아간 망자의 추천을 위해서거나 살아 있는 이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복을 비는 재가 있다. 망자를 위한 재에도 상례적 개념의 칠칠재와 대소상재, 제례적 개념의 기일(신)재와 불특정 추천재와 우란분재가 있다. 또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올리는 대표적인 재로 임금의 수명장수를 비는 축수재, 재수대통을 위해 올리는 재수재가 있다. 흔히 이를 생축불공이라고 하여 마치 재와 다른 개념처럼 들릴 수 있다.¹⁸⁾

둘째, 재 형식에 따른 분류로 대중소로 실행되고, 광략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같은 영산작법일지라도 대불청이나 단불청으로 행하는 것이다. 수륙재의 경우에도 지반문, 중례문, 결수문은 재의 형식과 규모가 반영된 분류라고 할 수 있다.¹⁹⁾

16) 황성기, 『불교의 인식 윤리 의례』(보림사, 1989), pp.247~249.

17) 홍윤식, <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의 의의>, 『월간 금강』 8월호, 1993.8, pp.26~31.

18) 안진호의 『석문의범』(전만상회, 1935) 목차나 황성기의 『불교의 인식 윤리 의례』 등에는 망자를 위한 의례만을 재공이라고 하고, 산 자를 위한 공양을 '각청'이라는 항목으로 편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는 오로지 망자를 위한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19)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지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중례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결수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 규모에 따라 대중소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의 설행 시기에 따른 분류인데, 재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망자의 경우 사후 상례적 개념의 재와 제례적 개념으로 기일재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재의 분류로 사후에 하느냐 생전에 하느냐에 따라 사후추천재, 생전예수재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재의 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소망하는 재의 목적에 따라 재공의 대상 불보살을 선택하여 재를 올리는 경우로, 나한재 공작재 용왕재를 비롯하여 재수를 기원하는 신중공양이나 망자의 천도를 위해 지장재일에 공양을 올리는 경우를 언급할 수 있다.²⁰⁾

다섯째, 특정 영가를 추천하기 위해 행하는 재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영가를 위한 재인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 여러 분류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수륙재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무주(無住, 無主) 망자들의 사후에 추천을 위해 4성 6범의 상중하의 모든 존재를 함께 청해 재를 올리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의 의례를 각청과 재공으로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20) 안진호나 황성기의 분류처럼 각청과 재공으로 분류한다면 지장재일에 재를 올리고 선망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청은 공양이고 재공은 천도라는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Ⅲ. 수륙재 儀文의 形成

1. 形成의 概要

수륙재 의문은 ‘재의’라고 불린다. 한국의 수륙재의 명칭을 보면, 재를 닦는 의문으로, 재를 행하는 방법을 담은 그릇으로, 달리 표현하면 의궤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여러 수륙재 의문의 형성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 장의 전통 수륙재를 복원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륙재 또는 수륙법회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는 『중국불교의궤제도』 ‘수륙법회’편을 위시해 적지 않으므로²¹⁾ 일일이 언급할 수 없고 다만 본 논문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방식으로 의문의 수입 간행 성격 등을 살펴보자.

국내에 수륙재 의문이 처음 수입된 것은 고려 선종 7년(1090)의 일이라고 보이고 일연의 제자 혼구(混丘, 1251~1322)에 의해 신편수륙의문 2권이 찬집되었는데 이는 갖춘 의문으로 보인다. 그 무렵 죽암 猷 승려에 의해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권, 이후 『중례문』으로 불림)가 찬집된다. 후대의 간행본이기는 하지만 『중례문』의 ‘이곳에 있는 인계(수인) 등과 법구는 소본에 실려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거둬 신지 않는다’²²⁾고 하는 협주를 보면 소본, 곧 수인이 있어 『결수문』이라고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 또한 14세기 초기에 편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中國佛教』2, 중국: 知識出版社, 1982[1989], pp.383~387); 윤소희, 「한·중수륙법회연구」(『韓國音樂研究』제43호, 한국국악학회, 2008);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선문화연구』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등에서 수륙의문의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2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韓佛儀叢』2), p.217하,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此重錄.”

국내 첫 수록재 설행을 고려 광종 963년, 968년에 귀법사에서 행해진 무차 수록회로 보고 있지만,²³⁾ 언급되고 있는 의문은 훨씬 뒤에 수입되거나 찬집된 본임을 알 수 있다. 비단 이는 국내 수록재 의문의 문제만은 아니다. 수록재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 양국의 사료를 토대로 볼 때, 적어도 중국의 남북 두 계통 수록재의 근원적 의문은 국내에 모두 수입되었다고 보인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여러 유형의 수록재 의문은 남북 두 계통의 유형과 각각의 수록단에 붙이는 방문(榜文)의 ‘잡문’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는 상황과 전승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인가. 견기이작(見機以作)의 상황성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의 특성으로 볼 때, 단순히 남아 있는 의문의 판각 회수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15세기 말 인수대비의 ‘중간서목록’에는 『중례문』·『지반문』·『결수문』·『자기문』 등 4종의 수록의문이 나란히 등장한다.²⁴⁾ 이들은 17세기에 수록재 의문을 ‘천지명양수록재의’라는 이름으로 산보할 때 한국불교 수록재의 보편적 원형을 제시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15세기 이래 수록재의 사전 설법과 독경의식인 법석의 의문으로 보이며, 현 영산재의 시원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는 한국불교 전통 수록재의 원형을 재구하는 데 적지 않은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²⁵⁾ 이 『작법절차』와 유사한 의문은 이후 『영산대회작법절차』(1634)라는 이름으로 수차 간행된다. 이 의문에는 ‘영산대회작법절차’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소례결수작법’

23)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제10집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pp.20~21.

24)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pp.173~175),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373)에서 재인용.

25) 이 『작법절차』는 인수대비의 명에 의하여 연산군 2년(1496)에 학조 승려가 의식문을 정음으로 번역한 것인데 앞의 『진언권공』과 뒤의 『삼단시식문』이 합편돼 있다. 앞의 『진언권공』이 서명으로 채택돼 『작법절차』와 『삼단시식문』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작법절차』는 영산재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영산대회작법절차』로 간행된다. 『삼단시식문』은 수록재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 ‘별축상작법절차’ ‘성도작법절차’와 ‘삭발문’ ‘점안문’ ‘독성의문’ ‘지장단청’ 등이 함께 편제돼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표제문은 ‘공양문’(이하 『공양문』이라 약칭함)으로 명기돼 있는데, 이 의문에 의거하면 ‘소례’ ‘중례’ ‘지반문’의 수록의례를 행할 때 영산작법으로 공양 설법 독경을 행해야 함을 말해 준다. 현행 영산재와 수록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례결수’와 ‘중례문’으로 수록재를 행할 때 현행의 운수상단 공양을 올리고 결계하고 도량을 엄정히 한 다음 사자단과 오로단 의식을 행하라는 지문을 볼 수 있다.²⁶⁾

결국 『공양문』에 협주와 편제에 의지하면 영산작법의 공양은 수록재회를 선행하기 위해 행하는 사전 의식적이며 상단공양과 설법의식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록재를 보완하기 위해 영산재가 탄생했다²⁷⁾는 주장은 타견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현행 영산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성립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오중범음집』의 소동과 작이나²⁸⁾ 의천의 작품이라는²⁹⁾ 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고려 백련사의 보현도량에서 시원적 형태이고 여말 선초의 법화법석으로 전개되다가 조선전기 수록재와 기신재의 실행양식으로 정착되면서 조선전기에 성립되었다’³⁰⁾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 까닭은 ‘법화법석’을 위한 작법절차가 현행 영산재의 시원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작법절차』는 법화경이나 삼매참법뿐만 아니라 화엄경·아미타경·참경 등 칠칠재 법석을 위한 ‘공양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록

26)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한불의총』 2, p.139.

27) 沈祥鉉,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관한 研究』(경주: 위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45.

28) 智禮 撰, 『五種梵音集』(1661), 『한불전』 12, p.157중.

29) 沈祥鉉, 위 논문, pp.37~41.

30) 沈曉變, 앞의 논문, p.46.

재의나 예수재의³¹⁾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에는 ‘영산재의’라는 의문이 별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양문’은 수륙재와 예수재 등의 칠재를 행할 때 선행하는 의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의문의 간행으로 볼 때 현재의 영산재가 단독 ‘재의’로 수용된 역사는 그리 길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수륙재의 영산의식이 영산재와 다른 것은 수륙재나 예수재에서 3일 5일 7일의 독경 또는 설법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간행된 수륙재 의문은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이나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 ‘범음집’에서처럼 다양한 의식이 합편된듯하지만 실은 같은 재 의문으로 대소 의문을 모아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불교 일반에서 이해하고 있듯이 서로 다른 재 의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정통의 의문

그렇다면 한국 수륙재의 정통 의문을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수륙재 의문에 대한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수륙재 의문의 성립과 간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³²⁾

- 1090년경 북 수륙 계통의 수륙의문 송으로부터 도입
- 13세말에서 14세기 초 혼구의 『신편수륙의문』 찬집
- 14세기 초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결수문, 소례로 불림)
- 14세기 초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례문으로 불림)
- 15세기 전후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귀』(지반문으로 불림) 간행

31)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한불의총』2.

32) 고상현, 앞의 논문 등 참조.

- 15세기 후반 『천지명양수륙잡문』
- 15세기 전후 법석용 의식 절차인 『작법절차』 등장

이상의 의문들은 수요 혹은 법공양의 공덕을 증장하기 위해 간행되다가 수차 복간된다. 16세기 이후의 ‘요문’·‘제반문’·‘청문’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산보’와 ‘의문 회편’ 작업이 일어난다. ‘범음산보집’, ‘영산대회작법절차’가 그것이다. 순수한 수륙재 의문을 중심으로 볼 때 『결수문』 28본, 『중례문』 18종, 『지반문』 10종이 남아 있다.³³⁾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느 의문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고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논자는 한국불교 수륙재 의문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다음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명칭 등에서 한국불교 수륙재의 독창성이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국불교 남 수륙 계통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귀수재』나 북 수륙 계통의 『천지명양수륙의문』과 달리 ‘수륙무차평등재의’(『결수문』)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 주되 그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행법으로 행함으로써 수륙재의 본회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초반 편찬되어 현대 한국불교의 전범으로 수용된 『석문의범』(1935)에 실려 있는 수륙재 의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왜인가. 『석문의범』 편찬자는 의례를 집전하는 범패 범음의 전수자가 아니라 경학의 강백으로 당대의 의식을 집수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찬의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석문의범』에 편재된 수륙재 의문에는 수인은 없지만 ‘촬요’의 『결수문』이다.

33) 이기운, 「조선후기 수륙재의 실행과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편찬의도」(『진관사 국행수륙대재의 조명』, 2010), pp.97~98; 고영섭, 「한국의 근대화와 전통 불교의례의 변모」, 『불교학보』 제 55집(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08), p.407.

셋째, 현재 주로 설행되고 있는 의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 초기 1497년 조선의 수륙사가 있던 국행수륙도량 진관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진관사를 비롯하여 현재 호남 등지에서 ‘촬요’의 『결수문』으로 수륙재가 설행되고 있고,³⁴⁾ 삼화사에서는 ‘찬요’의 『중례문』으로 대본을 삼고 있다.³⁵⁾

수륙재의에는 남 수륙 계통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북 수륙 계통의 「천지명양수륙의문」이 있으며, 이들의 요점을 간추리거나 압축한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이 유행되었으며, 이 중 ‘촬요’ ‘소례’라고도 불리는 『결수문』이 한국불교의 수륙재 전통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정통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IV. 한국 수륙재의 構造와 次序

이제부터 수륙재의 구조와 차서 등에 대해 논의해 보자. 재의 의미와 재의(齋儀)를 분석해 수륙재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설행되었으며, 또 어떻게 현재 복원돼야 그것이 전통문화로서 가치와 중생구제와 일체 중생의 성불이라는 수행으로 완성될 수 있으려면 어떤 점들이 검토되어야 할까. 논자는 이미 ‘시련(侍禪)의 대상, 변공(變供)의식, 선후의 차서(次序)’ 등에 대해 1차 논의하였지만³⁶⁾ 당시의 논의를 좀 더 보완하며, 동시에 수륙재의 일차, 대령과 시련, 평등과 차이의

34) 계호, 『진관사수륙대궤』(진관사, 2011), pp.513~602; 김춘명, 『수륙의문』(전북불교연합회, 1988).

35) 이에 대해 2013년 8월 14일 봉은사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어장 동주 원명 스님은 당신이 수습한 수륙재 의문은 ‘찬요’의 『중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6) 논자는 이 분야에 대해 201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50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포교활용을 위한 수륙재 검토-의궤구조와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라는 이름으로 수륙재에 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정토학연구』제18집에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의미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저본은 「공양문」의 ‘소례결수작법절차’(1634)와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에 보이는 차례와 의문, 그리고 국행수륙도량이었던 진관사 등지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문을 중심으로 하겠다.

1. 構造와 特性

수륙무차법회는 4성 6범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거나 시식을 행하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소청→공양→봉송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므로 재 도량을 건립해야 하고, 법회를 알려야 하고, 오방의 길을 여는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상 중 하단에 해당하는 불보살과 신중과 영가를 청하게 되는데, 먼저 상단의 불보살의 삼보를 청해 목욕을 모신 다음 자리를 권해 앉게 하고 차를 올리고 참여 대중이 삼배를 올린다. 이어 중단의 신중님들을 청해 목욕을 마치고 상단의 삼보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며 차를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위의 영가를 청해 다층적 절차에 따라 목욕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삼보께 절을 올리게 한 다음 자리에 앉히고 차를 올림으로써 3위 3단의 소청의식이 끝난다.

다음에는 수륙재의 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양의식이 행해진다. 상단에는 변공과 헌공으로 봉행되고, 이어 중단에는 상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지 상단의 변공진언의 염송 편수가 21편인 데 비해 중단의 변공을 위해서는 7편 내지 14편이 염송된다. 하위의 영가들의 음식 베푸는 데는 다층적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5여래의 명호와 진언을 염송하여 하위의 영가들로 하여금 두려

움을 없애도록 무의시를 베풀고(12인연을 설해주어 집착을 없애게 하며),³⁷⁾ 아울러 정업을 소멸하고 원결을 풀고 난 다음 음식을 한량없는 감로의 음식으로 바뀌게 하는 ‘주식변공’을 베풀 후 하위의 영가에게 음식을 베풀다. 이어 여섯 범부들로 하여금 업장을 참회하고 사홍서원을 발원하게 하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일러주고 받게 한다. 그 다음에는 법화경 계송으로 제법의 실상을 일러 주어 실상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위에서 청해 모시고 공양을 올리거나 음식을 베풀었던 3단의 존재들을 함께 보내거나 혹은 따로 따로 본래 계신 곳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재회가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 현재 일상적으로 봉행하는 재의식과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과 규모로 행해지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설재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분화되며 독특한 의례의식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수륙재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에 정착되는 과정에 음악과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예술성을 안고 있는 영산재라는 의례를 생성하였다. 또 수륙재 설행 때 고힌의 정화를 위해 등장한 지장보살에 대한 지장신앙이나 도량의 결계와 청정을 위해서 감로수를 청해 받기 위해 모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음신앙, 도량결계에 활용되던 관정의식으로 보이는 관정광진언의 변형인 광명진언 신앙 등은 수륙재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분기·분화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한국 수륙재가 전체성에서 개별적으로 나아가며 또 한편으로는 부단히 전통성을 추구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결수문』의 무의시에 배대된 이 ‘설십이인연편’은 『중례문』처럼 ‘법시’로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次序와 差異

가. 작법의 차서

1) 일차

수륙재의 설행일차에 대해 ‘3일영산’ ‘7일재’라는 말이 있는데, 영산은 3일에 걸쳐 설행되며³⁸⁾ 7일간 재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³⁹⁾ 앞에서 재의 원어 ‘우포사다’에는 수기행(守軌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단 인도문화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설문해자주」 재(齋)의 ‘3일재 7일계’⁴⁰⁾라는 설명은 동아시아권에도 이 같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태조 이성계는 재계를 할 때 신하의 하례를 받지 않았으며,⁴¹⁾ 역불군주로 알려진 태종은 태조의 기신재를 위해 7일간 육식을 하지 않고 있다.⁴²⁾ (유교식 종묘 제례 때에도 국왕은 4일을 산제하고 3일을 치제한다.) 이 사상이 수륙재의에 녹아들었다고 보인다. 이 같은 사실로 보면 적어도 3일 영산 기간은 오후불식을 지니고, 7일 동안은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는 계행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의 7주야 작법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수예일(손을 모아 예를 올리는 날): 먼저 풍백우사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권공한다. 영가를 대하는 대령작법은 의문대로 한다.
- 1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를 잡고, 법화경 제1권을 법회 대중과 함

38) 심상현, 앞의 논문, p.45.

39)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에 지반3주야작법절차, 7주야작법규 등이 제시돼 있다.

40)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중국: 天工書局 印行, 中華 81), p.3.

41) 『정종실록』권1, 원년(1399) 1월 1일조.

42) 『태종실록』권21, 11년(1411) 5월 23일조.

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천왕 용왕 가람 세 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그날 밤 축시(새벽 2시)가 되면 상주작법을 하는데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 후 의문대로 축원을 한다. 첫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2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2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예적 명왕 범왕 제석 사천왕 성황단의 여섯 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그날 밤 축시가 되면 3권 자기문 5주야작법규 하권과 같이 상주 승려가 마지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둘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3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3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설선작법을 마치고, 사자단 오로단의 두 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그날 밤 축시가 되면 상주 승려가 마지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셋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4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4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비로단 지향단(십지십향) 행주단(십행 십주) 삼십삼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하고 시식을 한다. 그날 밤 축시가 되면 상주 승려가 마지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넷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5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5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

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나한단(전반단 후반단) 개종단 향당단 제산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한다. 다섯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6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6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제천단 제신단 시왕단을 청해 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하고 축원을 하고 시식을 한다. 여섯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
- 7일: 영산작법을 하는데, 회주는 향로는 잡고, 법화경 제7권을 법회 대중이 함께 독송을 마치며 수경계송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다. 축원은 의문대로 한다. 점심을 하고 종실단 왕사단 법계단 지옥단 아귀단 방생단 상중하고혼3단의 십위를 청해 자리에 앉히고 의문대로 시식을 한다. 일곱째 날 낮과 밤의 예법이다.⁴³⁾

일단 7주야라고 하지만 사실상 8일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데 설행날수로만 보면 대만 불광사의 수륙법회와⁴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수륙재가 상·하당에 4성 6범을 모시고 행하는 데 비해 한국의 수륙재는 각단을 시설하여 행하는 점이 다르다. 7주야 수륙재에 시설되는 단은 상단을 제하고도 25단인데, 3주야 수륙재에는 12단이 시설되고, 『범음산보집』 도림사 판에는 자기문35단의 위목규⁴⁵⁾가 소개되고 있다.

설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하느냐, 3일에 하느냐, 아니면 7일에 하느냐

43)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 『한불전』11, pp.520하~521.

44) 윤소희는 「수륙재의 원형에 대한 고찰-대만 포광산 수륙법회를 통하여-」,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 세미나』, pp.44~46에서 이를 췌정과 외단의 선도에서 송성까지 14단계를 8일간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45)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한불의총』3), p.163.

에 따라 법회의 성격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재회의 목적과 동참재자의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동참의 규모에 따라 설단을 하고 독경과 예참이 행해져야 한다. 이 차서는 일차별로 법화경 7권을 한 권씩 독송하고 각 단을 소칭해 권공하지만 칠칠재 각 재의 5일 전부터 진언법석 참경법석 화엄삼매참법석 능엄법석 원각법석 법화삼매참법석의 법석을 행하고 칠재를 봉행하고 있는 예는⁴⁶⁾ 한국불교의 전통수륙재의 원형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대령과 시련

7주야 작법절차의 1일차에 영가를 맞이하는 ‘대령’은 보이지만 현재 수륙재의 첫 부분에서 행해지는 ‘시련(侍巖)’은 보이지 않는다. 『범음산보집』에 나타나는 ‘주시련’⁴⁷⁾ ‘상시련’ ‘중시련’ ‘하시련’은 해탈문 밖에서 위패를 연에 실어 절 도량 안으로 모셔오는 의식이다. 이 시련에 대해 “호법성중 범천 제석천 팔부성중과 재 받을 대상(영가)를 모셔오는 의식”⁴⁸⁾이라고 하여 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호법신장을 모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성중을 청해 모셔 ‘재 도량을’ 옹호하라고 이해하지만 현 시련을 위해 청해 모신 제 현성의 소임은 재 도량의 옹호가 아니라 지금 바로 행해지는 연을 옹호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 연에 오르는 위패는 원불과 함께 선왕선후의 선가(仙駕)이어야 한다.⁴⁹⁾ <시련위의도>는 반차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련의 대상에 있지 않다. 현재 시련의 대상을 재 도량을 옹호할 분들을 미리 모셔오는 의식으로 이해하다 보니 의식의 서두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불교 수륙재에서 재 도량을 옹호하는 역할은 가람신이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륙재에서는 천왕 용왕 가람단

46) 金容祚, 『朝鮮前期의 國行祈禳佛事研究』(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0), p.230.

47)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 『한불전』11, pp.496하~497상.

48) 『한국의 수륙재』, p.76.

49) 즐고,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pp.182~187.

의 제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의 ‘7주야 작법절차’에는 대령보다 풍백 우사를 먼저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야외에서 주로 행해지는 수륙 재회가 원만하게 선행되려면 날씨가 좋아야 하므로 날씨를 주관한다고 이해하는 풍백우사를 먼저 청해 공양 올리며 부탁드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시련의문으로 쓰이고 있는 ‘옹호계’에서 ‘보례삼보’까지의 의문은 16세기의 『범음집』이나 『영산작법절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련절차 재의는 안진호의 『불자필람』(1931)과 『석문의범』(1935)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불자필람』에는 신중(작법)청 다음에 시련절차라고 편제돼 있지만, 『석문의범』에는 대령의 부록이라고 수정 편제되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신중작법은 39위 또는 104위 신중을 청해 도량을 옹호하고 불사를 성취하게 청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략에 따라 39위 또는 104위를 청하라고 협주하고 있고, 다수의 불교의례 수용자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천신(天神) 선신(仙神) 호법제신의 39위는, 예절원만성자와 석가화현 10대명왕 4금강 8보살의 23위의 불격과 천신 선신 호법제신으로 구성된 104위의 축약이 아니므로, 39위를 청할 때와 104위를 청할 때는 단순한 광략(廣略)의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격과 규모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현 시련절차 의문은, 수륙재회를 열기 위해 불사리 고승사리 전패 금은전 시주 경합 쾌불 설주 등의 이운(移運)의식의 하나인 <시주이운>의 의문으로 등장하고 있다.⁵⁰⁾ 재 도량 옹호를 청하기 위해 지방제현성을 청해 모시는 것이 틀리지 않지만 시련절차 의문에서는 재 도량 옹호의 하나인 시주를 이운하는 연을 옹호하고 수호해달라고 청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련의 대상은 처음에는 주상이어야 하지만 <전패이운>이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범음산보집』의 <시주이운>은 문자 그대로 ‘시주이운’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50)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 『한불전』11, p.465상.

불타나 신중 이운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범음산보집』의 차서는, 대령을 선행하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재회 전 날 대령을 하여 〈분수작법〉으로 영가의 업장을 맑히고 복덕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다.⁵¹⁾ 분수작법은 ‘焚諸惡業, 修諸善根’⁵²⁾이라고 하여 영산회상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송주하고 정근 하여 여러 악업을 소멸하고 여러 선근을 닦아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수록재를 위한 장엄 법구와 시주를 이운하고 있다. 시주를 이운할 때 실제로 시주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관과 의대(衣帶)를 연에 실어 들어오는데, 이때 시주 집안에서 준비한 각종 음식이 왔기 때문에 행한다’⁵³⁾는 협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 시련의식을 전통의 시주이운의식으로 이해하고 수용되어, 복원되면 의미 있는 수록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풍백우사단의식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목에서 다룰 평등과 차이의 질서를 통해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식이 의문의 의미대로 복원 실행되면 생동감 있는 전통문화로서의 한국 수록재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의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平等과 差異

1) 上下의 平等

수록재의 명칭 ‘천지명양수록재의’나 ‘법계성범수록승회수록재의귀’나 ‘수록 무차평등재의’의 함의는 무엇인가. 4성 6범이라는 일체 존재를 함께, 무차로 청

51) 『천지명양수록재의 범음산보집』, 『한불전』11, pp.462하~464상.

52) 『영산대회작법절차』, 『한불의총』2, p.138하.

53) 『천지명양수록재의 범음산보집』, 『한불전』11, p.465상.

해 평등하게 공양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륙재 수륙법회 공불 재승대회의 핵심은 ‘재’를 올리거나 베푸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선조의 기일에 절에 가서 승려들께 공양 올리며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의 신불군주였던 태조는 참회와 명복에는 수륙재에 버금갈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수륙재를 개설하여 망인의 명복을 빌고 공덕을 쌓게 하였다. 이때 ‘상·중·하’라는 자리에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초청에는 차별이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기일에 승려들을 청하여 공양하였지만[飯僧], 조선시대에는 이름은 재승(齋僧)이라고 하면서도 승려가 아닌 이들에게까지도 공양을 베풀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경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기득권층인 유생들에게 척불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⁵⁴⁾ 하지만 재 도량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해탈문 밖에서 전(奠)시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 수륙재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上下의 差異

‘수륙재의문’의 명칭에서 ‘재의(齋儀)’나 ‘수재(修齋)’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수륙재는 공양을 베푸는 의식이다. 공양에는 이(理)공양과 사(事)공양이 있는데, 이공양은 이치로 공양하는 것으로 관상공양이라고 할 수 있고, 사공양은 실제로 재를 공양하는 것이다. 육신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사공양이 펼쳐져야 하지만(식당작법, 대소심경)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이공양이 행해진다. 상·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수륙재의에 의하면 상단·중단·하단의 공양을 위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엄송하는 진언의 차이가 있다.

54) 『세종실록』권55, 14년(1432) 2월 14일조; 동년 3월 5일조.

〈표 1〉 주요 수록재 의문의 변공과 헌공 진언

의문	단	변공진언	헌공진언
지반문	상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21편	소향 헌등 헌화 도향 헌공 음악 헌과 헌병진언 보공양
	중	변식 14편 감로수 수륜관 유해 각 7편	권공계승 이후 보공양진언
	하	변식 감로수 수륜관 유해 각 7편	표백 후 보공양진언
승편문	상	변식 감로수 수륜관 유해	보침공양 후 보공양진언
	중	"	"
	하	"	"
결수문	상	정법계 변식 출생공양 21편	헌향 헌등 헌화 헌과 헌수 헌병 헌식 운심공양진언 각21편
	중	정법계 변식 출생공양 7편	"
	하	변식 시감로수 수륜관 유해	시귀식진언 보공양진언

논자가 『결수문』을 한국불교 수록재의의 가장 큰 전통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변공의식에 있다. 『지반문』 계통으로 수록법회를 봉행하는 중국의 수록의문이나 시식의문은 상단의 존재들을 위한 이공양의 진언이 변식진언과 감로수진언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불교의 수록재의 상단 경전 독송을 위한 법회에 활용되는 『작법절차』나 『진언권공』의 변공절차와 같다는 것이다.

또 상단공양의 모범이라고 보이는 요의 도신의 『현밀성불원통심요집』 〈공불이생의〉의 차서⁵⁵⁾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변식 사다라니로 알려진 진언들의 고유 기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유해진언은 ‘보시일체아귀인진언’으로 상단의 불보살께 변공(變供)하는 진언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더욱 옳지 않

55) 『供佛利生儀』, 『大正藏』46, p.1004下.

다고 보인다.

평등과 차이는 동체대비의 사상을 드러낸다. 공양은 평등하게 베풀지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용자를 위한 배려에서이다. 수륙재의 곳곳에는 이 같은 평등과 차이가 알알이 박혀 있다.

V. 결어

네 부류의 성인들과 여섯 부류의 범부를 함께 청해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베풀며 법문을 들려주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륙재는 현재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수륙재에 대한 인식과 재의 분류, 의문의 정통성, 구조와 차서 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 바람직한 한국불교 정통의 수륙재를 실행하려면 다음 몇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는 음식을 굶는 수기행(守飢行)이었지만 재가신도들이 수행자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정착되었고, 지금은 제사 의미가 포함된 시식과 추천의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 개념이 재식의 반승개념인가, 아니면 의식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인가에 따라 재와 재 의문을 바르게 읽는 데 도움을 주며 재가불자의 재(공양)의 실행을 열어줄 수 있다.

둘째, 수륙재 의문인 재의(齋儀)는 11세기 중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며 ‘찬요’, ‘촬요’, ‘지반문’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편찬되었다. 논자는 그 가운데 ‘촬요’ ‘결수문’으로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의』가 가장 한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점만을 간추린 ‘촬요’나 ‘찬요’만으로 수륙재의식이 실행되기

어려우므로 17세기에 이르면 『범음산보집』류가 편찬되었고, 이후에도 수찬의 역사를 걷게 되었다.

셋째, ‘산보집’과 현행 수록재와는 구조와 차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차에 있어서도 『범음산보집』에 보이는 7주야 작법절차대로 행해지는 경우는 보기 어렵지만 이 작법절차는 풍백우사단이나 제산단 등을 청하는 등, 중국 수록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적인 특징과 한국불교의 특성이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므로 그 생성 의미를 살려 복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수록재는 시련·대령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하단소청을 별도로 하고 있는 등 『범음산보집』이나 이전의 수록재의와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대령과 시련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행 시련의식은 상·중·하 3단의 소청의식이 아닌, 재 공양을 올리는 재자와 재물을 맞이하는 『범음산보집』의 시주이운의식이므로, 그렇게 이해되고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 전통의 수록의문들에는 4성 6범을 평등하게 청해 공양과 시식을 할 때, 진언변공의 격식(진언과 그 편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현행 수록재에서는 무화(無化)되었다. 이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며, 이 때 발생하는 4다라니 작법 춤의 유지문제는 별도의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review on current Suryukjae(水陸齋) in Korea



Lee, Sung-Woon
(Dongguk univ. / instructor)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is a comprehensive Buddhist ceremony in which four saints and all beings in six worlds are invited for a feast and inferior sentient beings are given Dharma talk leading to nirvana. But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being practiced in Korea nowaday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China where it is originated and the ritual oration used prior to Korean Buddhism and the understanding of it.

Jaε(齋, the offering ritual)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was to practice meditation fasting but was changed into offering food to meditators. Again, it is regarded as the meaning indicating all commemorative rites for Chucheon(追薦,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In this essay, the original meaning of *Jaε*(齋, the offering ritual) and the transit of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it is considered and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offering ritual oration for land and water is examined, and then it is argued that *Gyeolsumun*(結手文, making *mudrās*) or *Chwalyo*(撮要, the selection of the gist) is the orthodox oration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Also, the structure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and the

difference of the order of it and so on ar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Daeryeong(對靈, the rite of calling in the soul) and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is renewed, the daily rate of it is identified, and the cause for putting Daeryeong(the rite of calling in the soul) first is explained. In addition, the original meaning of Siryeon(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was to receive lay people who would offer food to the meditator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sent. Besides, the difference of the even and Byeongong(變供, differential offering food) to the three platforms is illuminated.

The scale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is arrange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lay people who offer food and a grand or simple ceremony of it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 of the ritual arrangement, which has undergone a great transformation over its history. As the result, it might come to contain a new meaning or misunderstanding up to the present.

Meanwhile, the understanding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has not been studied deep into, and so the most reliable authority might be that of the professional performers of the rite. Therefore,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arrangement of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the transformation process over its history should be researched and examined closely on the basis of the canonical understanding for the origination and structure of the ritual for land and water. And then it should be reflected to arrange Suryukjae(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by adapting it in the way of Mahayana.

Key-words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Jaeui(齋儀, the offering ritual ceremony), Jaesik(齋食, the ritual of offering the food), *Gyeolsumun*(結手文, making *mudrās*), *Chwalyo*(撮要, the selection of the gist), *Beomeumsanbojip*(the collection of Brahma voice), Chucheon(追薦,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Daeryeong(對靈, the rite of calling in the soul),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참고문헌

- 『정종실록』권1, 『태종실록』권21, 『세종실록』권9, 『세종실록』권55.
- 『양촌집』권12, 진관사수륙사조성기, 1397년 9월.
- 『佛說食施獲五福報經』(失譯人名, 今附東晉錄, 『大正藏』2).
- 『供佛利生儀』(『大正藏』46).

- 『삼단시식문』(진언권공 합편, 學祖 譯, 1496, 『한불의총』1).
-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한불의총』2).
-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大愚 集述, 1576, 『한불의총』2).
- 『五種梵音集』(智禪 撰, 『한불전』12).
-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智還 集, 『한불전』11).
-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한불의총』3).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재』(대한불교조계종, 2010).
-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중심, 2001).
-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知識出版社, 1982[1989]).
-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天工書局 印行, 中華 81.
- 황성기, 『불교의 인식 윤리 의례』(보림사, 1989).

-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 고영섭, 「한국의 근대화와 전통 불교의례의 변모」, 『불교학보』 제55집(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08).
- 권기종, 『불교사상사연구』상, (한국불교연구원, 2004).
- 金容祚, 「朝鮮前期의 國行祈禳佛事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0).

- 沈祥鉉,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관한 研究」, (위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沈曉燮,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 윤소희, 「수륙재의 원형에 대한 고찰-대만 포광산 수륙법회를 통하여-」,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영산재보존회, 2008).
- 윤소희, 「한 · 중수륙법회연구」, 『韓國音樂研究』제43호, (한국국악학회, 2008).
- 이기운, 「조선후기 수륙재의 실행과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편찬의도」,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의 조명』, 2010.
- 이성운, 「현행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12.
- 李英淑,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홍윤식, 「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의 의의」, 『월간 금강』 8월호, 1993.8.

투고일 : 2013. 11. 30. 심사완료일 : 2013. 12. 15. 게재확정일 : 2013. 12. 17.